

창원기업 코로나19 영향과 정부 지원제도 만족도 조사

2020. 6

창원상공회의소

1. 조사개요

1) 조사기간

- 2020년 5월 8일 ~ 22일

2) 조사방법

- Fax, E-mail(온라인 설문)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3) 설문 응답업체의 일반적 특성

- 응답업체 업종별 (N=168)

	업체 수		업체 수
기계 제조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	9
자동차부품 제조	34	금속가공 제조	19
전기장비 제조	17	기타 제조	10
1차금속 제조	10	비제조업	34

- 응답업체 규모별 (N=168)

	업체 수		업체 수
300인 이상	27	300인 미만	141

- 응답업체 매출구조별 (N=168)

	업체 수		업체 수
수출중심 (50% 이상)	52	내수중심 (50% 미만)	116

4) 조사사항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유무 및 영향요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영향 전망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
-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의 만족도

2. 요약 및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과 앞으로 예상되는 영향
 - ‘원청업체 생산감소’(22.3%)와 ‘수출지연 및 취소’(14.1%) 가장 큰 영향
 - ‘운영자금 부족’(9.9%)과 ‘대금회수 지연’(8.8%)도 높은 비중 차지
 - 원청의 생산감소와 수출지연은 모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며, 무엇보다 후방 협력관계에 있는 산업 및 기업들로 연쇄될 개연성 높음
 - 이후 예상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원청업체 생산감소’(18.8%), ‘수출지연 및 취소’(14.1%)로 여전히 높은 비중
 - 현재와 향후 예상되는 영향을 시점별 응답비중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운영자금 부족’ 28.0% → 44.0%(+16.1%p), ‘투자위축 및 중단’ 21.4% → 34.5%(+13.1%p), ‘채용위축 및 중단’ 13.7% → 25.6%(+11.9%p) 등 ‘부품수급 애로’(+8.9%p), ‘수입가격 등 원가 상승’(+8.3%p)
 - 매출과 유동성 부족의 요소들이 누적되면서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투자와 채용 위축이 가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품 수급 애로와 수입가격 등 원가상승으로 생산차질은 물론 채산성까지 영향 미칠 것
- 2020년 상반기 매출 전망(전년 동기 대비)
 - 응답업체 88.7%가 ‘매출 감소’, 8.3%는 ‘변화 없음’, 3.0% ‘매출 증가’
 - 매출감소를 전망하는 응답업체의 67.8%는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 이 중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업체도 12.1%를 접했음.
 - 매출감소는 수출기업이 더욱 클 것으로 응답
 - 수출기업, 20% 이상 감소 79.1% (이중 50% 이상 감소 20.9%)
 - 내수기업, 20% 이상 감소 63.2% (이중 50% 이상 감소 8.5%)
 - 매출 20% 이상 감소로 응답한 업체비중은 ‘자동차부품’(82.4%), ‘전기장비’(76.5%), ‘1차금속’(60.0%), ‘기타운송장비’(55.6%)로 조사
 - 다수의 업체에서 매출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규모도 높은 수준임. 특히 수출기업의 매출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내수기업으로까지 확대할 개연성이 높음.

○ 경제위기 대응 비상경영 대책

- ‘일상경비 축소’ 40.7%, ‘휴업 또는 일부라인 축소’ 28.9%, ‘인력 구조조정’ 11.2%), ‘임금축소’ 9.0%, ‘사업구조 조정’ 8.4% 순
- 다수의 기업이 생산능력과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비상경영을 우선적으로 수립, 이후 기업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력 및 사업 구조조정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가장 시급한 정부지원 정책과 만족도

- ‘운영자금 등 금융지원 확대’ 33.1%, ‘세금감면 및 납부유예’ 23.6%, ‘고용유지지원 확대’ 16.5%, ‘SOC확충 등 대규모 재정정책’ 9.5%, ‘소비촉진 유도’ 8.3%, ‘해외 비즈니스 재개 지원’ 4.5%, ‘채용 및 투자촉진 유도’ 3.7% 순임.
- 정부 지원정책의 만족도, 만족 25.8% · 불만족 32.4%
규모별 불만족 비중은 ‘300인 이상’ 40.7%, ‘300인 미만’ 30.8%
업종별 불만족 비중은 ‘제조업체’ 35.4%, ‘비제조업체’ 20.6%
매출구조별 불만족 비중은 ‘수출업체’ 35.3%, ‘내수업체’ 31.1%
- 대체로 ‘300인 이상’, ‘제조업체’, ‘수출업체’의 불만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제조업체’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불만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
- 지원정책의 불만족으로 응답한 이유로 ‘협소한 지원 조건 및 대상’ 24.1%, ‘실질적인 지원 속도’ 20.1%, ‘복잡한 지원절차’ 18.5%, ‘불명확한 지원 기준’ 14.9%, ‘지원제도 홍보 부족’ 12.4% 순
- 정부 지원정책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비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대규모·제조업의 만족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협소한 지원 조건 및 대상’을 가장 큰 불만족 요인으로 꼽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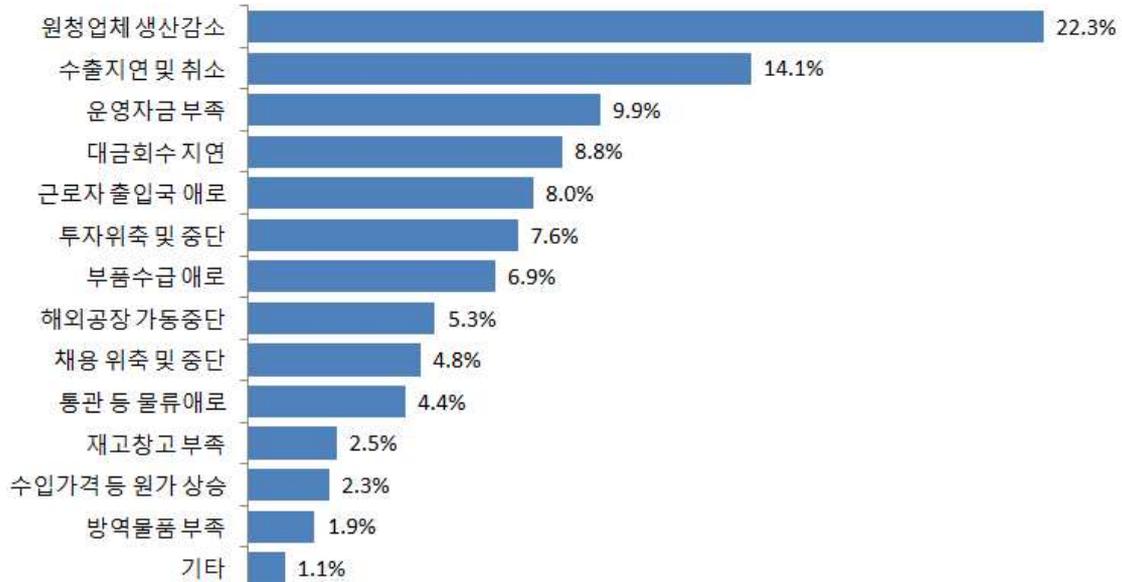
○ 지원제도 만족도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 규모별·업종별로 차이 보여

- 300인 이상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만족도 낮아...
- 비제조업, 제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부지원제도 만족도
- 대체로 비제조업, 300인 미만 기업, 300인 이상 기업 순으로 만족도가 높으며, 지금까지의 코로나19 기업 지원이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제조업과 대규모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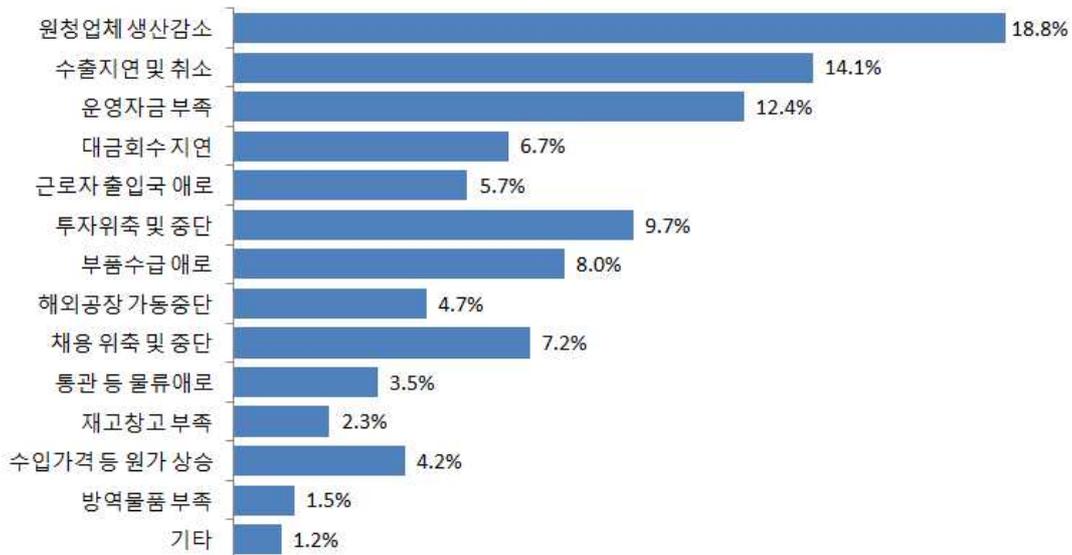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168개 사)의 84.5%가 ‘이미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로, 12.5%는 ‘현재는 없으나 예상된다’고 답했음. 나머지 3.0%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로 답해, 전체 97.0%가 ‘이미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응답했음.
- 현재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원청업체 생산감소’가 2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출지연 및 취소’ 14.1%, ‘운영자금 부족’ 9.9%, ‘대금회수 지연’ 8.8% 순이었음.
- 코로나19 확산이 기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원청업체 생산감소’와 ‘수출지연 및 취소’로 나타났음. 두 요인 모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무엇보다 이는 후방 협력관계에 있는 산업 및 기업들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큼. 원청기업의 생산감소는 1차 협력업체의 수주차질로 이어지고, 이는 곧 2차, 3차 협력업체로 확산되기 때문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복수응답, n=168)



- 실제로 현 시점 이후 예상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원청업체 생산감소’와 ‘수출지연 및 취소’로 꼽았으며, 해당 문항을 꼽은 업체 수도 늘었음.
-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이어질 경우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18.8%가 ‘원청업체 생산감소’, 14.1% ‘수출지연 및 취소’, 12.4% ‘운영자금 부족’을 꼽았음. 이는 현재 받고 있는 영향과 비중 순위 면에서 같은 수준임.
다음으로 ‘투자위축 및 중단’ 9.7%, ‘부품수급 애로’ 8.0%, ‘채용 위축 및 중단’이 7.2%를 차지했음.

현 시점 이후 예상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 설문에 제시한 영향요소들을 현재와 향후 시점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원청업체 생산감소’는 현재 106개 업체가 향후에는 112개 업체가 응답해 6개 업체가 추가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 답했음. 특히, 현재와 향후 예상 요인을 비교했을 때 응답업체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요소는 ‘운영자금 부족’이 응답업체의 28.0%에서 44.0%로 16.1%p 증가했고, ‘투자위축 및 중단’은 13.1%p, ‘채용위축 및 중단’ 11.9%p, ‘수출지연 및 취소’ 10.1%p, ‘부품수급 애로’ 8.9%p ‘수입가격 등 원가 상승’ 8.3%p 늘었음. 대부분 제조업에 해당하는 요인들로, 현 시점보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애로요인들이 더 크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매출과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누적되면서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투자와 채용의 위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부품수급 애로와 수입가격 등 원가상승으로 생산차질은 물론 채산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현시점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예상되는 영향 응답률 비교

	현재 체감중인 영향	향후 예상되는 영향	증감
운영자금 부족	28.0%	44.0%	16.1%p
투자위축 및 중단	21.4%	34.5%	13.1%p
채용 위축 및 중단	13.7%	25.6%	11.9%p
수출지연 및 취소	39.9%	50.0%	10.1%p
부품수급 애로	19.6%	28.6%	8.9%p
수입가격 등 원가 상승	6.5%	14.9%	8.3%p
원청업체 생산감소	63.1%	66.7%	3.6%p
해외공장 가동중단	14.9%	16.7%	1.8%p
재고창고 부족	7.1%	8.3%	1.2%p
기타	3.0%	4.2%	1.2%p
통관 등 물류애로	12.5%	12.5%	0.0%p
방역물품 부족	5.4%	5.4%	0.0%p
대금회수 지연	25.0%	23.8%	-1.2%p
근로자 출입국 애로	22.6%	20.2%	-2.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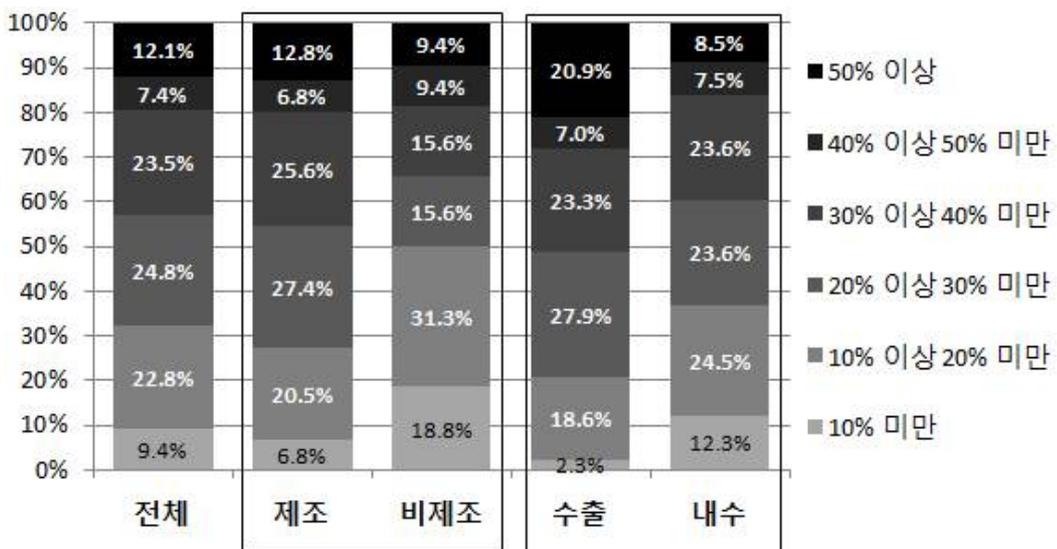
- 코로나19의 영향은 매출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년 대비 올해 상반기 매출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88.7%가 '매출 감소'로, 8.3%는 '변화없음'으로 답했고, '매출 증가'로 응답한 비중은 3.0%에 그쳤음.
- '매출 감소'를 전망하는 응답업체(149개 사)의 감소수준별 비중은 '10% 미만 감소'가 9.4%(14개 사), '10% 이상 20% 미만 감소' 22.8%(34개 사), '20% 이상 30% 미만 감소' 24.8%(35개 사), '30% 이상 40% 미만 감소' 23.5%(11개 사), '40% 이상 50% 미만 감소' 7.4%(11개 사), '50% 이상 감소' 12.1%(18개 사)로 나타났음.

- 특히 내수기업 보다는 수출기업이, 비제조업 보다는 제조업의 매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내수기업의 매출감소 응답업체 중 20% 이상을 답한 업체가 전체 63.2%였고, 이 중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답한 업체도 8.5%임. 하지만, 수출업체의 경우 79.1%가 2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고, 50% 이상 감소했다고 답한 업체도 20.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비제조업의 매출감소 응답업체 중 20% 이상을 답한 업체가 전체 50.0%였고, 이 중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답한 업체도 9.4%임. 하지만, 제조업체의 경우 72.6%가 2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고, 50% 이상 감소했다고 답한 업체도 12.8%에 달했음.

매출감소 응답업체 중 감소 수준별 비중 (n=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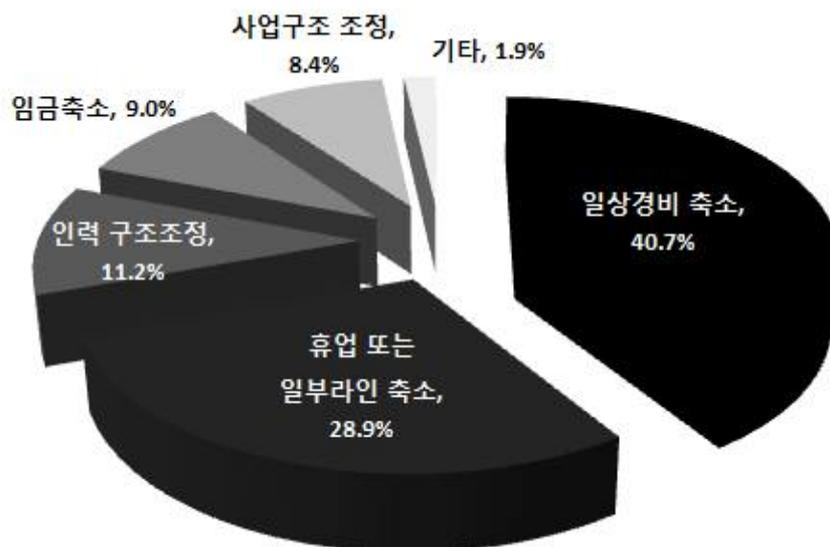


- 이는 지난 3월 말 실시한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에서 이루어진 매출감소 결과와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창원지역 기업의 매출 및 실물 경기의 악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음.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응답업체의 77.6%가 매출감소를 전망했고, 이중 절반 이상(54.0%)은 20% 미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음.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8.7%가 매출감소로 응답했고, 이 중 67.8%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업종별로 매출 20% 이상 감소를 예상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업종이 82.4%로 가장 높았고, ‘전기장비’ 76.5%, ‘1차금속’ 60.0%, ‘기타운송장비’ 55.6%, ‘금속가공’ 52.6%, ‘기계장비’ 48.6%, ‘비제조업’ 47.1%로 나타났다.
- 코로나19를 비롯한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응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예정인 비상경영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일상경비 축소’가 40.7%로 가장 많았고, ‘휴업 또는 일부라인 축소’ 28.9%, ‘인력 구조조정’ 11.2%, ‘임금축소’ 9.0%, ‘사업구조 조정(자산매각 등)’ 8.4%, ‘기타’ 1.9% 순으로 응답했음.
- 코로나19를 수요부진은 물론 생산, 수급, 유통 등 전방위의 애로점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다수의 기업이 생산능력과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비상경영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이후 기업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력 구조조정이나 사업구조 조정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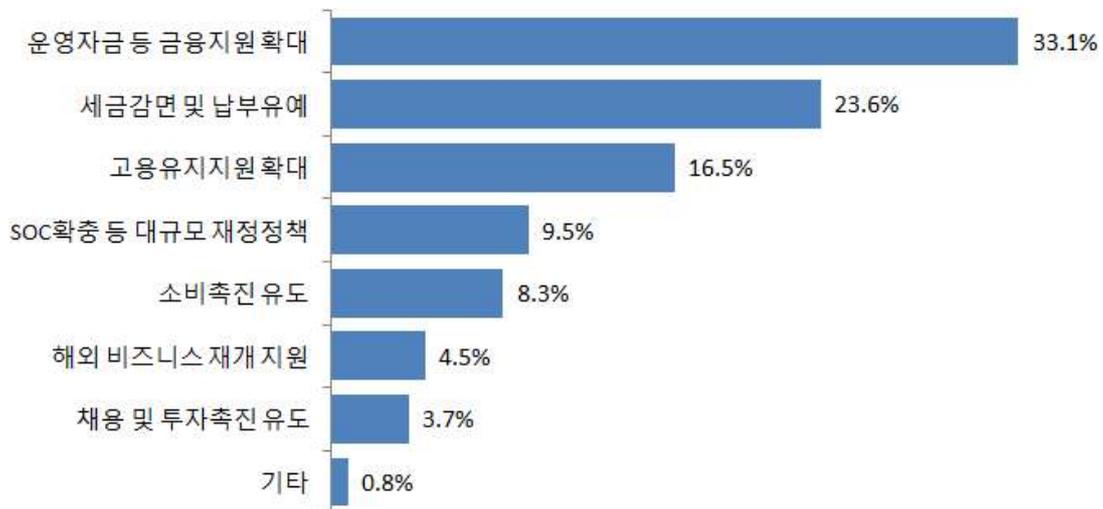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한 비상경영 대책 (복수응답, n=168)



2.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기업지원 대책에 대한 평가

- 코로나19를 비롯한 현재의 경제위기에 가장 시급한 지원방안을 묻는 질문에 ‘운영자금 등 금융지원 확대’를 33.1%가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세금감면 및 납부유예’ 23.6%, ‘고용유지지원 확대’ 16.5%, ‘SOC 확충 등 대규모 재정정책’ 9.5%, ‘소비촉진 유도’ 8.3%, ‘해외 비즈니스 재개 지원’ 4.5%, ‘채용 및 투자촉진 유도’ 3.7% 순으로 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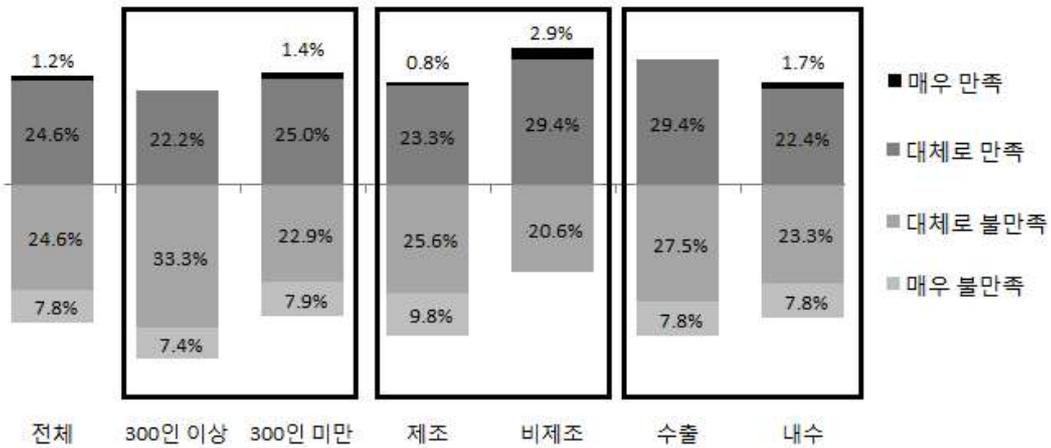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복수응답, n=168)



-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원정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25.8%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32.4%는 반대로 부정적 의견을 냈음.
- 규모별로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22.2%가 긍정적 평가를, 40.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300인 미만’ 기업은 26.4%가 긍정적 평가를, 30.8%는 부정적으로 평가해 ‘300인 이상’ 기업이 지원정책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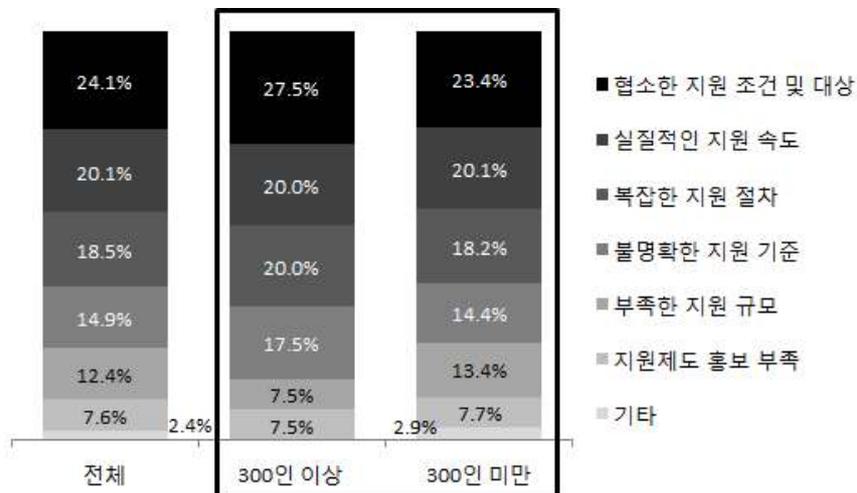
- 업종별로 제조업은 24.1%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35.4%는 부정적 의견을 내 대체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32.3%가 긍정적 의견을, 20.6%가 부정적 의견을 비제조업의 기업 지원 만족도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복수응답, n=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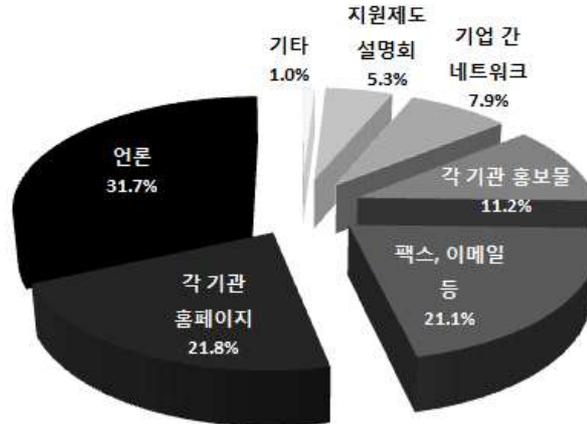
- 코로나19 관련 기업지원 대책이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24.1%가 ‘협소한 지원 조건 및 대상’을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실질적인 지원 속도’ 20.1%, ‘복잡한 지원 절차’ 18.5%, ‘불명확한 지원 기준’ 14.9%, ‘부족한 지원 규모’ 12.4%, ‘지원 제도 홍보 부족’ 7.6%, ‘기타’ 2.4% 순이었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복수응답, n=168)



- 코로나19 관련 기업지원 정책을 접하는 경로를 묻는 질문에 31.7%가 ‘언론’을 꼽아 가장 많았고, ‘각 기관 홈페이지’ 21.8%, ‘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공문’ 21.1%, ‘각 기관 홍보물’ 11.2%, ‘기업 간 네트워크’ 7.9%, ‘지원제도 설명회’ 5.3% 순으로 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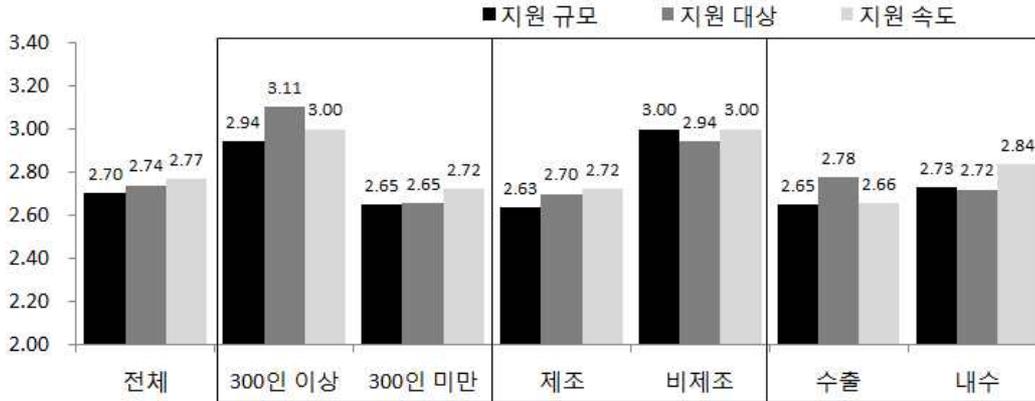
지원제도 인지 경로(복수응답, n=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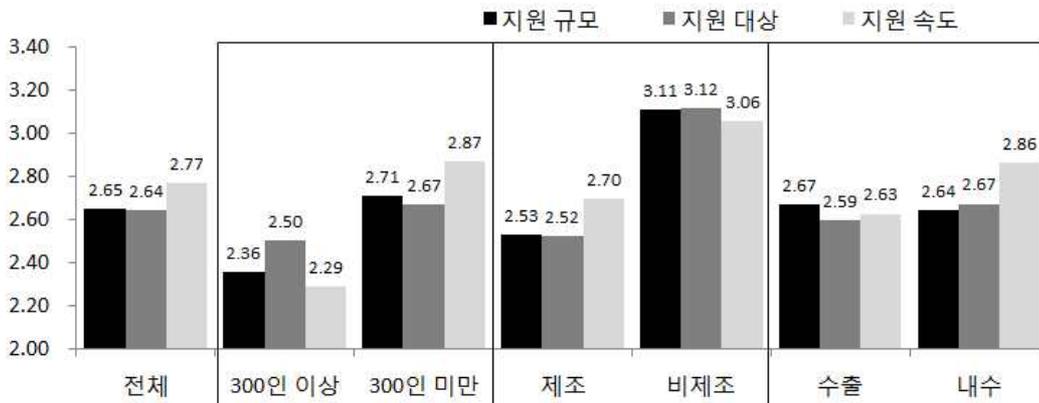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부각되고 있는 정부의 기업지원제도 중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경영안정, 특례보증 지원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지원 규모, 대상, 속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2.50’(5점 만점) 이상을 기록했다. 항목별, 업체 특성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음.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의 경우 지원규모는 ‘2.70’, 지원대상 ‘2.74’, 지원속도 ‘2.77’을 나타냈음. 규모별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지원규모 ‘2.94’, 지원대상 ‘3.11’, 지원속도 ‘3.00’으로, 300인 미만 기업은 지원규모 ‘2.65’, 지원대상 ‘2.65’, 지원속도 ‘2.72’로 조사되었음.
 타 지원제도와 달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되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용규모가 크면 클수록 고용유지의 부담이 큰데 따른 것임.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만족도가 제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주요 정부지원제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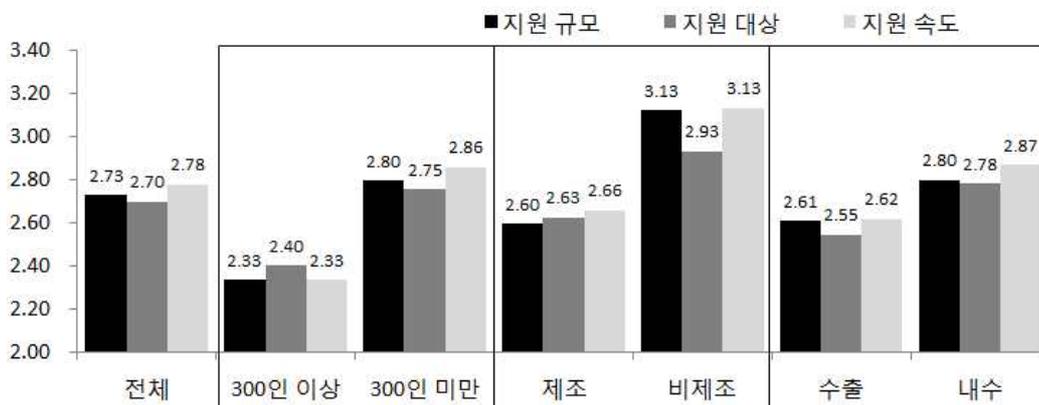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n=100)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n=86)



특례보증 지원 (n=63)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의 경우 지원규모는 '2.65', 지원대상 '2.64', 지원속도 '2.77'을 나타냈음. 규모별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지원규모 '2.36', 지원대상 '2.50', 지원속도 '2.33'로 만족도 보통 이하로 조사되었음.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음.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종이 제조업종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음. 특히 지원규모(3.11)와 지원대상(3.12), 지원속도(3.06) 모두 3점 이상의 만족도로 조사되었음.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하는데 있어 작은 규모의 기업과 비제조업이 활용만족도가 높은 것은, 긴급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비제조업 및 소규모기업에 집중된데 따른 것임. 더욱이 제조업이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이 수급기업의 안정자금으로 기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임.
- 특례보증 지원제도의 만족도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주요 지원제도의 만족도는 지원이 규모와 대상, 속도 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높은 수준을 보였음. 실제로 타 지원제도와 달리 대규모 사업장에도 지원이 가능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규모에 있어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나머지 지원제도에서는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음. 더불어 소비촉진, 내수진작 등 상대적으로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졌던 서비스업을 비롯한 비제조업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음.
- 정부지원제도 만족도가 대체로 비제조업, 300인 미만 기업, 300인 이상 기업 순으로 높음. 기존 코로나19 지원제도가 소비촉진, 내수진작,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규모 제한 등 비제조업과 중소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대규모기업도 경영안정과 특례보증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